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

구종남*

|| 차례 ||

1. 서론
2. 부정극어 허가자 논의의 위한 이론적 기초
3. 부정극어 허가자의 함수적 특징과 허가 양상
4.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국어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허가자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원리로 부정극어를 허락하는지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명시적인 부정 문맥은 모든 부정극어들이 허용되는 공통 조건이다. 국어에서 명시적 부정문은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말다', '모르다', '없다'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기 전에', '-면', '-느니/기보다', 성분 부정, 수사 의문문 등 비명시적 부정 문맥을 이루는 표현들이 또한 일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본고에서는 기왕에 제시되었던 부정극어 허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 이론을 살펴보고 비명시적인 문맥에서 허가되는 부정극어 허가자의 특징과 허가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어의 비명시적 부정극어 허가자 중 '-기 전에', '-느니/기보다'는 반형태함수였으며 나머지는 반부가함수였다. 그리고 '-기 싫어하다', '-기 거절하다', '-기 전에'는 반진정적 운용소이고 '-기 어렵다', '-느니/기보다', '-면', 수사의문문 '-기 힘들다'는 비진정적 운용소였다. 따라서 국어 부정극어는 반부가 함수, 비진정적 운용소 이상에서 허가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부정극어, 단조성, (비)진정성, 반진정성, 단조감소, 단조증가, 반형태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본고는 국어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허가자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원리로 부정극어를 허락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부정 문맥에서만 허가되는 부정극어는 극성의 정도나 형식에서 다양한 면을 보이며 명시적 부정 문맥에서는 모든 부정극어가 허가된다. 그러나 명시적인 부정은 아니지만 이들을 허가하는 다양한 문맥이 있다. 이 비명시적인 부정 문맥의 경우 허가자가 어떤 원리로 부정극어를 허가하며 허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이들에 의해 허가되는 부정극어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명시적인 부정 문맥은 모든 부정극어들이 허용되는 공통 조건이다. 국어에서 명시적 부정문은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말다', '모르다', '없다'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기) 싫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기) 전에', '(-면)', '(-느니/기보다', 성분 부정, 수사 의문문 등이 또한 일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이들 허가자들이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부정 문맥과 같은 문맥을 구성하거나 명시적인 부정문이 부정극어 허가와 관련하여 갖는 특성을 이들 허가자들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 부정 문맥 외에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여러 허가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이 어떻게 부정극어를 허가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극어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바, 허가자의 그들의 유형이나 허가자의 성격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허가자는 부정 문맥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정 극어도 의미상 대응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별로 부정극어가 일치하지 않고 허가자도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지만 부정극어의 유형과 허가자는 공통점이 있고 일반적인 허가 원리가 존재하므로 부정극어 허가에 대한 범언어적 이론을 살펴

보는 것이 국어 부정극어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고 부정극어 허가 논의의 보편타당성을 제고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에 제시되었던 부정극어 허가자에 대한 여러 허가 이론을 살펴보고 국어 부정극어 허가자에 대해 논의한다. 국어 부정극어는 수사의문문에 의한 부정극어 허가를 제외하고는 단조성에서 특정한 함수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단조성 이론으로 부정극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왜 부정극어가 그런 단조성을 띠어야 하는지 설명되어야 하는바, (비)진정성 이론이나 외축(함축)이론이 필요하다. 수사의문문에 의한 부정극어 허가는 (비)진정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진정성 이론의 도움 없이 외축(함축)으로 이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외축 이론으로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기 거절하다' 등 단조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허가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단조성 이론을 중심으로 부정극어 허가자의 특징을 밝히고 부정극어 허가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 경우 (비)진정성 이론이나 함축 이론으로 설명이 보완될 것이다.

본고는 다음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2에서는 그 동안 부정극어 허가자 논의에서 제안되었던 여러 이론들을 개관한다. 3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국어 부정극어 허가자들의 함수적 특성과 (비)진정성을 밝히고 이들의 부정극어 허가 양상을 고찰한다. 4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문제점 및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2. 부정극어 허가자 논의를 위한 이론적 기초

본고에서는 부정극어 허가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허가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그 동안 인구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부정

사-통합이론, 단조성 이론, 진정성 이론 등 부정극어 허가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이론 중 단조성 이론을 중심으로 부정극어 허가자의 특징을 밝히고 이들의 허가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진정성 이론과 함축으로 논의를 보완할 것이다.

2.1. Klima(1964) 비한정사-통합

Klima(1964)는 여러 부정극어 허가자가 [Affective]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정극어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부정사- 통합

$$[Affective]^{GSF} X-Quant-Y \Rightarrow Affective-X-Indef + Quant-Y$$

조건: 양화사가 [Affective]를 포함하는 성분과 구성관계(성분 지휘관계)에 있다.

(1)은 부정극어가 허가자 ([Affective])의 작용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 의해 허가자의 작용역 안에서 some, once 등이 any, ever 등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규칙은 너무 강력하고 규칙적이며 부정극어 중에는 (1)로 인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이현우 2004). 또 문장에서 [Affective]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분포를 제약하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Ladsaw(1979)는 부정극어가 함수적인 의미의 표현들에 의해 그 허가자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2.2. Ladsaw(1979) 하향함의 이론

Ladsaw(1979)에서는 하향 함의(downward)를 부정극어의 허가 조건으로 제안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하향 함의 : 함수 f 는 만일 모든 자의적인 요소 X, Y 에 대해 만일 $X \subseteq Y \rightarrow F(Y) \subseteq F(X)$ 일 때만 하향 함의이다.

하향 함의는 상위 집합에서 하위 집합으로의 추론이 가능한 것을 말하
는바 not이 대표적인 하향 함의 자질을 갖는다.¹⁾ Ladsaw(1979)는 표현이
하향 함의일 때만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하고 있다.²⁾ 부정극어는 명시적
인 부정문에서는 모두 허가가 되나 비명시적인 부정문에서도 허가되는 경
우가 있는데 하향 함의 이론이 이런 경우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하향 함의 이론은 이것이 순수 의미론적인 것이므로
하향 함의가 아닌데도 부정극어가 인가되는 경우와 하향 함의인데도 부정
극어가 인가되는 경우가 있다는³⁾ 문제가 있다(Linebarger 1987).⁴⁾

하향 함의는 부정극어 허가자의 공통된 의미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부정
극어 인가자에 대한 설명에 공헌했으나 위에 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부정극어 인가자의 특성과 부정극어의 의미적 특성을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주지 못한다.

1) 상향 함의는 하위 집합에서 상위집합으로의 추론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상향 함의 자질을 갖는 것은 every, some 등이다. 한편 상위 집합으로나 하위 집합으
로의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비단조적 (non-monotonic)이라고
한다.

2) Ladsaw(1979)은 하향 함의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not, no, 조건절, 비교급, 전칭양화
사(관계절을 이끄는 경우), without, before, too-to, seldom 등을 들고 있다.

3) 예컨대 jet는 하향 함의 속성을 갖는 few나 at most 등에 의해 허가되지 못한다.

4) Linebarger(1987)는 의문문, exactly, only는 부정극어를 허가하는데 이들은 하향함
의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하향 함의 이론의 문제점은 조건절, 관계절, 비교문
before 등이 하향 함의 표현에 나타나지만 부정극어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3. Zwarts(1993)의 단조성 이론

부정극어는 부정 문맥에서는 모두 허가되지만 명시적인 부정 문맥이 아닌 부정극어 허가자들의 경우 각 부정극어들이 이들에게서 허가 여부가 달리 나타난다. Zwarts(1993)는 그 이유가 부정 맥락의 강도(부정성)에 의한다고 보았는데 부정 표현들은 각기 다른 논리 자질을 가지고 있고 부정의 강도에 따라 약부정, 강부정, 초강부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⁵⁾

부정성(negativity)은 명제들의 연역적 추론이나 추론적 가능성(inferential potential)을 의미하는 단조성(monotonicity)을 의미하는데 부정을 나타내는 세 가지 함수는 단조 감소 함수, 반부가 함수, 반 형태 함수로 분류된다. 단조 감소 함수가 부정의 강도가 가장 낮고 반 형태 함수가 부정 강도가 가장 강하다. 이 부정성이 달라짐에 따라 허가되는 부정극어도 달라지므로 부정성의 유형에 따라 부정극어의 유형화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3) 단조 감소

B가 불 대수계라고 할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리고 만족시켜야만, B의 양화사 Q가 단조감소이다: B의 임의의 원소 X, Y에 대하여, $X \in Q$ 이고 $Y \subseteq X$ 이면, $Y \in Q$.⁶⁾

(4) 반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리고 만족시켜야만, a에서 b로 가는 임의의 함

5) 그는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드모르간의 법칙의 준수하느냐를 들었는데 이를 많이 준수할수록 강 부정표현이 되고 이것이 적게 적용될수록 약 부정표현이 된다.

6) 단조감소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Few linguists entered the race $\rightarrow$ Few linguists entered the race early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few는 단조감소 함수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at least, seldom, rarely 등이 있다. 단조감소 함수는 하향함의라고도 한다.

수 f 가 반부가 함수이다: A 의 임의의 원소 a, b 에 대하여, $f(a \vee b) = f(a) \wedge f(b)$. 다시 말하면, $f(a \text{ or } b) = f(a) \text{ and } f(b)$.⁷⁾

(5) 반형태

$\langle A, \leq \rangle$ 와 $\langle B, \leq \rangle$ 가 부분 순서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리고 만족시켜야만, a 에서 b 로 가는 임의의 함수 f 가 반형태 함수이다. : f 가 반부가 함수이고, A 의 임의의 원소 a, b 에 대하여, $f(a \wedge b) = f(a) \vee f(b)$ 이다.⁸⁾

위 세 가지 함수는 부정의 의미 강도에 따른 분류인바, 반형태 함수가 부정성의 정도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극어를 그 허가자의 양상에 따라 약부정극어, 강부정극어, 초강부정극어로 나눌 때 부정의 의미 강도에 따라 이들이 허가가 달라진다. 약부정극어는 단조감소함수에 의해, 강부정극어는 반부가함수에 의해, 초강부정극어는 반형태함수에 의해 허가된다(Zwarts1993). 한편 부정의 강도만을 고려하면 반형태함수는 반부가함수와 단조감소함수에 의해 허가되는 모든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단조 감소는 하향 함의와 동일한 것이며 반부가 함수는 단조 감소 함수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반형태 함수는 반부가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2.4. 단조성 이론의 한계

단조성 이론은 부정성의 강도와 이에 따른 각 부정극어의 허가 양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이론은 부정극어의

7) No one sang or danced $\leftrightarrow$ No one sang and no one danced이므로 no는 반부가 함수적 특징을 보인다. 이런 것으로는 nothing, none, neither, N, never, if, before, without 등이 있다.

8) John didn't sing or dance. $\leftrightarrow$ John didn't sing and John didn't dance.가 성립하고 John didn't sing and dance $\leftrightarrow$ John didn't sing or John didn't dance가 성립하므로 반형태 함수이다. not가 반형태함수에 속하는바 이는 반부가 함수와 반배가 함수의 특징이 결합한 것이다.

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Krifka 1991, 1995). 먼저 부정극어는 의문문, 수사의문문 습관성 구문, 총칭문에서도 허가되는바 단조성 이론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부정극어는 명령문, 미래형, 의향 동사, 비교급, 최상급, perhaps, maybe 등이 허가하는⁹⁾ 부정극어 현상을 단조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¹⁰⁾ 또한 부정극어가 왜 단조성에 의해 허가되는지 분명치 않다. 요컨대 단조성 이론의 문제는 대수적 의미론인 함수 이론으로 논리 형식에 의한 해석이 자연 언어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부정극어 허가 여부를 논할 때 모든 명사, 양화사, 한정사의 단조성 자질을 따져야 한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미자 2002).

2.5. 부정극어 허가와 (비)진언성 이론

Montague(1969)에 의하면 'John sees a unicorn.'과 같은 문장에서 동사 see의 논항은 개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는데 이는 진정적(veridical)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Zwarts(1995)는 진리 함의에 대해 정의하는바, 'It seems that Jones has seen a unicorn'과 같은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진리치가 종속절 명제의 진리치를 반드시 함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It seems that를 비진정적이라고 본다. 비진정성 이론은 이후 Giannakidou(1977, 1998, 1999, 2000)으로 발전했다. Zwarts(1995), Giannakidou(1977, 1998, 1999, 2000)에 의하면 (비)진정성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9) 이는 영어와 같은 인구어의 경우를 말한다.

10) 양상 동사는 단조성을 따지기 곤란하고, 의문문도 비단조적이며(Groenendijk and Stokhof 1984, 1987) 명령문, 총칭문, 의향 맥락도 비단조적이다(Keenan and Faltz 1985).

(6) Op가 일항 문장 운용소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 a. 오직 $Op\ p \rightarrow p$ 가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Op가 진정적(veridical)이다. 그렇지 않으면 Op는 비진정적(nonveridical)이다.
- b. 오직 $Op\ p \rightarrow \neg p$ 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비진정적 운용소 Op가 반진정적(antiveridical)이다.

명제 연산자 Op는 Op p가 사실일 때마다 명제 p도 사실이라면 진정적이다. 또한 Op p가 명제 p를 함의하지 않는다면 Op는 비진정적이다. 비진정적 연산자는 명제 p의 참이나 거짓을 함의하지 않는다. 반진정적 연산자는 명제 p의 거짓을 함의한다. 이는 비진정성의 부분 집합을 이룬다.

Zwarts(1995), Giannakidou(1977, 1998, 1999, 2000)에서는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perhaps 등 1항 연산자뿐 아니라, and, or, before 등 2항 연산자도 진정성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정의하고 있다.¹¹⁾ 이들은 문장이 진정적 논리 자질인 진정성을 가지면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없고, 비진정성을 가진 맥락에서는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문장이 비진정적 연산자에 의해 반진정성을 가지면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다. 반진정성을 비진정성의 부분집합을 이룬다.

여기서 비진정성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연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¹²⁾ 반진정적 연산자는 명시적인 부정어에 의한 부정과¹³⁾ 비명

11) C를 이항 진리-함수 접속사라고 할 때 다음 진술이 성립한다.

- a. 오직 $pCq \rightarrow [pCq \rightarrow q]$ 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C가 p[q]에 대하여 진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C가 p[q]에 대하여 비진정적이다.
- b. 오직 $pCq \rightarrow \neg[pCq \rightarrow \neg q]$ 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비진정적 접속사 C가 p[q]에 대하여 반진정적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and는 진정성을, or는 비진정성을, before는 반진정성을 나타낸다.

12) 김미자(2002)에서는 비진정성은 비진정적, 반진정적, 비특정적(unspecific), 비지시적(unreferential), 비한정적(indeterminate), 비사실적(irrealis), 미래적, 가정적, 의항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시적인 부정으로 구분된다. 비명시적인 부정은¹⁴⁾ 부정 함축에 의해 부정극어가 인가된다(김미자 2002).

3. 부정극어 허가자의 함수적 특징과 허가 양상

국어의 부정극어는 명시적인 부정문에서는 모두가 허가된다. 여기서 명시적인 부정문은 부정어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말다’, ‘아니다’, ‘모르다’, ‘없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문부정을 말한다.¹⁵⁾¹⁶⁾ 부정극어는 이들 명시적인 부정문에서 허가될 뿐 아니라, ‘-기 싫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기 전에’, ‘-면’, ‘-느니/라기 보다’, 성분 부정, 수사의문문 등에 의해 허가된다. 이들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는 점에서 비명시적 부정 문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자료를 기초로 한 부정극어 허가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부정극어는 언어별로 그 목록이 다르고 그것이 요구하는 허가자도 다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부정극어 허가 이론을 바탕으로 명시적인 부정극어 허가 표현을 제외하고 비명시적인 허가 표현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부정극어를 허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3) 명시적인 부정어로 not, no, none, nobody, never, nothing 등을 의미한다.

14) 이는 형태상 명시적인 부정어가 아닌 without, too-to, scarcely, deny, refuse 등을 의미한다.

15) ‘모르다’, ‘없다’는 각각 ‘알다’, ‘있다’의 반의어로서 문 부정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알다’, ‘있다’가 부정될 때 ‘안 알다’, ‘안 있다’가 쓰이지 않고 ‘모르다’, ‘없다’가 쓰이며 이들에 의한 문장이 전형적인 부정극어를 모두 허가한다는 점에서 문 부정에 포함시킨다.

16) 이 중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아니다’는 반형태함수이고 ‘말다’, ‘모르다’, ‘없다’는 반부가함수로 해석된다. 또한 이 중 ‘말다’, ‘모르다’, ‘없다’는 비진정적 운용소이고 나머지는 반진정적인 운용소이다.

3.1. -기 싫(어하)다

‘-기 싫(어하)다’가 허가할 수 있는 부정극어는 다음과 같다.

- (7) 가. ^(?)나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만나기 싫다.
 다. 나는 도무지/도저히/당최/거기에 가기 싫다.
 라. 그가 좀처럼/좀체로 /좀체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마. 나는 절대/절대로/결단코/결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바. 더 이상 그 약을 먹기 싫어요.
 사. 그는 여간해서는 인터뷰하기를 싫어한다.
 아. 진호가 일하기를 눈곱만큼도 싫어해요.
 자. 그 애한테는 동전 한 푼도 주기 싫다.
 차. 그 사람이 집에서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해요.
 카. 그는 한 치도 양보하기 싫어해요.
 타. 다시는 고향에 가기 싫다.

앞에서 부정극어의 허가자의 함수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바, ‘-기 싫(어하)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이유는 이것이 반부가 함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8) 가. 주희가 청소하거나 빨래하기를 싫어한다.
 나. 주희가 청소하기를 싫어하고 주희가 빨래하기를 싫어한다.
 (9) 가. 주희가 청소하기와 빨래하기를 싫어한다.
 나. 주희가 청소하기를 싫어하거나 주희가 빨래하기를 싫어한다.

(8가)와 (8나)는 상호함의를 한다. 그러나 (9가)와 (9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싫(어하)다’는 반형태함수가 아니며 반부가함수이고, 이의 부정극어 허가는 반부가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¹⁷⁾ 여기서

반부가 함수는 단조감소 함수(하향함의)의 부분 집합이다.¹⁸⁾

위 예문에서 보듯이 '-기 싫(어하)다'는 많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아무도'¹⁹⁾, 부정 함축을 갖는 수사어문에서 허가되지 못하는 최저점 가정의 화용론적 부정극어 '동전 한 푼도', '눈곱만큼도', '한 치도', '손가락도 까닥하다' 등이 허가된다는 점에서 부정성(negativity)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0) 가. 철수가 과일을 싫어한다.

나. 철수가 사과를 싫어한다.

위에서 (10가)는 (10나)를 함의한다. 따라서 '싫어하다'는 단조감소함수이다.²⁰⁾

17) 또한 '-기 싫(어하)다'는 반진정적 운용소로서 '싫어하다' 보문 내용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할 수 있다.

18) '-기 (싫어)하다'는 반진정적 문장 운용소이다.

19) '아무도'는 수용가능성이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 '싫어하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이유는 외축(explicature)적 의미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철수는 동수를 전혀 만나기 싫어한다'는 '철수는 동수 만나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기본 외축과 '나는 전혀 철수가 동수 만나기를 좋아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상위 외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싫다'가 '좋아하지 않다'를 외축하기 때문에 이 외축적 의미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된다고 할 수 있다. Sperber and Wilson(1986, 1995)에 따르면 외축은 어떤 발화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추론에 의하지만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다. 외축은 명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추론을 거쳐 나오는 함축과 다르다. 외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arston(2000,) 참고.

본고에서 논의하는 '싫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기 거절하다', 성분 부정 등의 경우는 모두 외축으로 자연스럽게 부정극어 허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단조성 이론이나 진정성 이론보다 외축에 의한 설명이 부정극어에 대한 허가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축의 설정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부정극어의 허가자를 자연스럽게 외축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

'-기 싫(어하)다'가 '싫어하다' 형식으로 쓰이면 '-기 싫(어하)다'에서 허가되는 부정극어가 극히 제한된다.

- (11) 가. ^(?)나는 통/당최 드라마가 싫어.
 나. ^(?)나는 고기가 더 이상 싫어.
 다. ^(?)나는 그 사람이 도무지 싫어.
 (12) 가. *아무도 취죽을 싫어해요.
 나. *나는 도저히 그 약이 싫어요.
 다. *주희는 결코/결단코/전혀 그 사람 싫어해.
 라. *나는 돼지고기를 더 이상 싫어해.
 마. *그는 중국 음식을 눈곱만큼도 싫어한다.
 바. *그는 과일을 아무것도 싫어한다.
 사. *나는 사과를 전혀 싫어한다.
 아. *그는 좀처럼 보약을 싫어해.
 자. *나는 더 이상 이 약이 싫어요.
 차. *그는 여간해서는 기자회견을 싫어해.
 카. *그는 아무것도 싫어한다.

(11)에서 보듯이 '싫(어하)다' 형식은 부정극어 허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허가되는 부정극어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 싫(어하)다' 형식이 진정한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할 수 있다. '-기 싫(어하)다'는 '-기' 앞에 용언을 선행시키는 보문 구성인바, 이것이 부정극어 허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보문 명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확인되었듯이 '-기 싫(어하)다'는 단조감소 함수이다. 우리는 여기서 단조감소

를테면 '싫어하다'와 유의어 관계인 '미워하다', '증오하다', '꺼리다' 등을 포함한 문장은 '좋아하지 않다'를 외축할 수 있는 명제 설정의 가능성의 보이나 부정극어를 허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함수라는 요건만으로 부정극어가 허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표현이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해서 모든 부정극어를 다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가자의 어휘 의미적 특성이나 부정극어의 어휘 의미적 속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부정극어가 허가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극어 허가자별로 그 허가되는 극어의 수가 제약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 싫(어하)다’도 ‘-밖에’, ‘미처’, ‘채’, ‘차마’, ‘과히’, ‘별로’, ‘별반’, ‘별달리’, ‘여간’ 등은 허가하지 못한다.

‘-기 싫(어하)다’는 호불호의 의미와 관련되는데, 이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 싫(어하)다’가 허가되지 않는 다음 극어들도 모두 함축 의미적 배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2) 가 *민수가 책 읽기를 과히 많이 싫어한다.
 나. *이로는 책 읽기를 여간 싫어한다.
 다. *희영이가 여행하기를 그다지 싫어한다.
 라. *진주는 그림 그리기를 별로 싫어한다.

위에서 보듯이 ‘과히’, ‘여간’, ‘그다지’, ‘별로’ 등 부정극어는 ‘싫어하다’가 허락하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긍정 사태를 전제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전형적으로 쓰이는 구문은 ‘-지 않다’ 부정문이다.

- (13) 가. 민수가 책 읽기를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나. 이로는 커피 마시기를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
 다. 희영이는 여행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라. 진주는 그림 그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위의 부정극어들이 쓰인 문장들은 모두 긍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다.

즉, (13가)는 ‘민수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 (13나)는 ‘이로가 커피 마시기를 좋아한다.’, (13다)는 ‘희영이가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13라)는 ‘진주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예문들은 긍정적인 함축 내용을 괄호 속에 비명시적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 (14) 가. 민수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좋아해도)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나. 이로는 커피 마시기를 (좋아하는데) 여간 좋아하지 않는다.
 다. 희영이는 여행하기를 (좋아해도/좋아하는데)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라. 진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부정극어들은 ‘-기 싫(어하)다’에서는 그런 함축을 나타내지 못해 이들은 허가되지 않는다²¹⁾ 또한 ‘-기 싫(어하)다’가 허가하지 못하는 부정극어는 ‘미처’, ‘채’, ‘차마’, ‘-밖에’, ‘별로/별반/별달리’, ‘이/그다지’ 등이 있다.

이들 중 ‘차마’는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므로 ‘싫(어하)다’와는 의미가 상호 배타적이어서 허가에서 배제된다. ‘미처’와 ‘채’가 허가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함축하는 부정극어들이므로 어떤 사태의 존재를 전제하는 ‘-기 싫(어하)다’가 그들 의미와 의미적으로 배타적이어서 호응 관계를 이루지 못해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저히’는 기본적으로 행동 상의 가능/능력과 관련된 사태에서 쓰이는바, 이런 의미는 ‘싫다’와는 의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므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21) 후술되듯이 ‘-기 힘들다’, ‘-기 어렵다’도 이들 부정극어를 허가하지 못하는바, 그 이유는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이제 ‘-밖에’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 (15) 가. *철수밖에 그 책을 읽기 싫어해요.
나. *철수가 밥밖에 먹기 싫어해요.

부정극어 ‘-밖에’는 다른 잠재 논항을 전제하고 쓰이는바 ‘N밖에’는 오직 N만이 긍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 (16) 가. 철수밖에 (다른 사람은) 그 책을 안 읽었어요.
나. 철수가 밥밖에 (다른 것을) 안 먹었어요.

이 문장들은 각각 ‘철수만 그 책을 읽었다’, ‘철수가 밥만 먹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N밖에’ 구문에서는 N이 문장의 부정 서술어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인 긍정 행위와 연결된다. 따라서 ‘N밖에’가 ‘-기 싫(어하)하다’ 구문에 쓰이게 되면 그 의미 기능상 ‘-기 싫(어하)다’의 반대 의미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않다’ 부정문은 통사적 구성 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진리치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 싫어하다’는 어휘적 구성으로서 그 반대의 진리치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싫어하다’의 이런 의미적 특성 때문에 ‘싫어하다’ 구문에서 ‘-밖에’가 허용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²²⁾

22) ‘-밖에’가 잠재적인 명시적인 잠재 논항을 갖게 되면 ‘-기 싫(어하)다’도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밖에’는 부정극어로 해석되기 어렵다.

- 가. 철수밖에 다른 사람은 그 책을 읽기 싫어한다.
나. 철수가 밥밖에 다른 것을 먹기 싫어해요.

위 구문에서는 잠재 논항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나타나 ‘-기 싫어하다’가 ‘-밖에’를 허가하는 듯이 보이나 이때 ‘-밖에’는 부정극어라고 볼 수 없고 ‘-외에’의 의미를

3.2. ‘-기 어렵다’

‘-기 어렵다’에 의해서도 꽤 많은 부정극어가 허가된다.

- (17) 가. 좀처럼/좀체 그 사람 소식을 듣기 어려워요.
 나. 요즘 통/당최/도무지 그를 보기 어렵다.
 다. 더 이상 그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
 라. 여간해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마. 너는 절대/절대로/결코/결단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바. 차마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사. 그를 눈곱만큼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 요즘 바빠서 꿈쩍도 하기 어렵다.
 자.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도 까딱하기 어렵다.
 차. 그렇게 해서는 동전 한 푼도 벌기 어렵다.
 카. 우리 입장에서는 한 치도 양보하기 어렵다.

위에 쓰인 부정극어들은 모두 ‘-기 어렵다’가 쓰인 문맥에서 허가된다. ‘어렵다’가 이들 극어들을 허가하는 이유는 이것이 반부가합수적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 (18) 가. 이로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나. 이로는 글씨를 쓰기 어렵고 이로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19) 가. 이로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나. 이로는 글씨를 쓰기 어렵거나 이로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가진 한정 조사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밖에’는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문법화된 것이므로 잠재 논항을 회복하면 ‘-밖에’가 극어로서 문법화된 이전의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18가)와 (18나)는 상호함의를 한다. 그러나 (19가)와 (19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어렵다’는 반부가함수다. 따라서 ‘-기 어렵다’에 의해서 허가되는 부정극어는 반부가 함수에 의한 허가다.²³⁾ 그런데 부정극어의 허가는 허가자의 함수적 특징만이 아니라, 허가자의 의미적 특징과 부정극어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그 허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부가 함수 ‘어렵다’에 의해 많은 부정극어들이 허가되나 그렇지 못한 극어들이 있다. ‘아무도’, ‘도저히’ ‘별로/별반’, ‘이/그다지’, ‘결코’, ‘여간’, ‘과히’, ‘미처’, ‘채’, ‘차마’, ‘전혀’, ‘-밖에’ 등이 그것이다.²⁴⁾ 역시 ‘-기 어렵다’ 형식이 아닌 ‘어렵다’ 형은 허가하지 못한다.²⁵⁾

(20) *문제가 통/도무지/좀처럼/절대/결코/절대로 어려워요.

위 예문의 부정극어들은 이 경우 ‘-기 어렵다’에서는 허가되나 ‘어렵다’ 자체로 부정극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어렵다’가 단조감소함수(하향함의)인바, 단조감소라고 해서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기 보문’과 같은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3.3. -기 힘들다

이제 ‘-기 힘들다’가 허가하는 부정극어들은 보기로 한다.

23) 또한 이는 비진정적 운용소이다.

24) 이들이 제약되는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25) ‘-기 어렵다’는 ‘-기 쉽지 않다’를 외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렵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이유는 부정어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기 어렵다’는 비진정적 운용소인바, 운용소 ‘-기 어렵다’가 도입하는 명제의 참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1) 가. 그 사람을 요즘 통 보기 힘들다.
 나. 그 사람한테 당최 그런 말을 하기 힘들더라고.
 다. 요즘 좀처럼/좀체/좀체로 그런 걸 보기는 힘들어요.
 라. 더 이상 참기는 힘들어요.
 마. 그 사람 여간해서는 만나기 힘들어요.
 바. 그 아이를 차마 그냥 보내기 힘들어서 다시 불렀다.
 사. 그 사람에게서 동정심은 눈곱만큼도 찾기 힘들어요.
 아. 요즘에는 그런 것 도무지 구경하기 힘들어요.
 자. 그 아픔은 도저히 참기 힘들더라.
 차. 진주가 주사 맞기를 이다지도 힘들어하더니.
 카. 동전 한 푼도 벌기 힘들어요.
 타. 피곤해서 꿈쩍도 하기 힘들어요.

위 예들에서 보듯이 ‘-기 힘들다’도 부정극어를 허가하는데 이는 ‘-기 힘들다’가 반부가함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22) 가. 유양은 노래하거나 춤추기가 힘들다.
 나. 유양은 노래하기를 힘들고 유양은 춤추기가 힘들다.
 (23) 가. 유양은 노래하기와 춤추기가 힘들다.
 나. 유양은 노래하기가 힘들거나 유양은 춤추기가 힘들다.

(22가)와 (22나)는 상호함의를 하나 (23가)와 (23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어렵다’는 이들은 반부가 함수가 된다. ‘-기 힘들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반부가 함수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²⁶⁾

26) ‘-기 힘들다’도 ‘용이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외축적 의미를 가지므로 ‘-기 힘들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것도 외축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 힘들다’는 비진정적 운용소라고 할 수 있는바, 이것이 도입하는 명제가 참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

한편 ‘-기 힘들다’ 형식이 아닌 ‘힘들다’는 위의 모든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없다. 또한 ‘-기 힘들다’는 ‘전혀’, ‘도무지’, ‘과히’, ‘미처’, ‘채’, ‘별로’, ‘별반’, ‘별달리’, ‘아무도’ ‘여간’ ‘과히’ 등은 허가하지 못한다. ‘-기 힘들다’에서 제약되는 부정극어는 ‘-기 어렵다’에서 제약되는 부정극어와 유사하다. 이는 함수적 속성이나 (비)진정성 속성이 같을 뿐 아니라, 이들의 어휘 의미적 속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4. -기 전에

먼저 ‘-기 전에’의 함수적 특징을 보기로 한다.

(24) 가. 선생님은 미자나 동수가 오기 전에 떠나셨다.

나. 선생님은 미자가 오기 전에 떠나셨고 선생님은 동수가 오기 전에 떠나셨다.

(25) 가. 선생님은 미자와 동수가 오기 전에 떠나셨다.

나. 선생님은 미자가 오기 전에 떠나셨거나 선생님은 동수가 오기 전에 떠나셨다.

(24가)와 (24나)는 상호함의하고 (25가)와 (26나)는 상호함의한다. 따라서 ‘-기 전에’는 반형태함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예문에서 부정극어의 허가는 반형태함수에 의한 허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전에’는 반진정적 운용소이다. 그런데 ‘-기 전에’가 허가하는 부정극어는 많지 않다.

(26) 가. ^(?)아무도 오기 전에 빨리 치워라.

나. 미자가 미처 그 책을 읽기 전에 반납 기일이 지나 버렸다.

다. 그가 동전 한 푼도 벌기 전에 그녀는 떠나 버렸다.

에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아이가 더 이상 먹기 전에 그걸 치워라.

마. 철수가 꼼짝도 하기 전에 미자가 일을 마쳤다.

‘-기 전에’는 반형태함수인바 이는 부정성이 가장 강한 것이다. 한편 이것이 반진정성 문장 운용소로서 ‘-기 전에’ 절이 거짓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 싫다’, ‘-기 힘들다’, ‘-기 어렵다’ 등이 허가하지 못하는 ‘아무도’, ‘미처’, ‘채’ 등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특정한 상적 동사가 아니거나 부사가 없는 한 행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 어렵다’, ‘-기 힘들다’에서 허가되지 않았던 전칭부정의 ‘아무도’가 허용되며,²⁷⁾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완료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미처/채’가 역시 행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 전에’의 의미와 호응할 수 있어 허가된다. 또한 어떤 행위가 존재했음을 함축하나 문제의 행동과 관련된 것 이외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하는 ‘더 이상’도 허가된다.²⁸⁾ 또한 최저점 가정의 화용론적 부정극어도 허가된다. 한편 ‘-기 전에’의 의미적 속성 때문에 위에 제시된 몇몇 부정극어 외에 대부분의 극어들은 이것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다.

3.5. -면

‘-면’은 다음에서 보듯이 ‘더 이상’만을 허가한다.

(27) 더 이상 먹으면 배탈이 난다.

27) ‘아무도’는 ‘-기 싫(어하)다’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기 어렵다’, ‘-기 힘들다’에서는 허가가 제약된다.

28) ‘철수가 빵을 더 이상 먹기 전에’를 예로 들면 철수가 빵을 3개 먹고 4개를 먹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먹기 전에’에서는 먹은 행위가 전제되나 4개를 먹은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면’은 함수적 속성 상 반부가 함수다.

(28) 가. 철수가 영이나 미자가 오면 떠날 것이다.

나. 철수가 영이가 오면 떠나고 미자가 오면 떠날 것이다.

(29) 가. 철수가 영이가 오고 미자가 오면 떠날 것이다.

나. 철수가 영이가 오면 떠나거나 철수가 미자가 오면 떠날 것이다.

(28가)와 (28나)는 상호함의하나 (29가)와 (29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은 반부가 함수다.²⁹⁾ ‘-면’이 부정극어 중 ‘더 이상’만 허가한다는 것은 역시 부정극어의 허가는 ‘-면’의 어휘 의미적 기능과 다른 부정극어들의 어휘 의미적 기능이 대부분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6. -기 거절하다

‘거절하다’는 단조감소 함수인바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다.

(30) 가. 이로는 춤추거나 노래하기를 거절했다.

나. 이로는 춤추기를 거절하고 이로가 노래하기를 거절했다.

(31) 가. 이로가 춤추기와 노래하기를 거절했다.

나. 이로가 춤추기를 거절하거나 이로가 노래하기를 거절 했다.

(30가)와 (30나)는 상호 함의를 한다. 그러나 (31가)와 (31나)는 상호 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절하다’는 단조감소 함수다.³⁰⁾ 그런데 ‘거절

29) ‘미자가 올면 엄마가 사탕을 준다.’가 사실이라도 전제절이 사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자가 사실이라고 해서 후자가 반드시 거짓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면’은 비진정적 운용소라고 할 수 있다.

30) ‘-기 거절하다’는 반진정적 운용소이다. 이는 ‘그가 밥 먹기를 거절했다.’가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런 함의 의미 때문에 부정극어가 허가

하다’는 ‘더 이상’만을 허가한다.

(32) 가. 그는 더 이상 먹기를 거절했다.

나. 철수는 더 이상 포즈 취하기를 거절했다.

‘더 이상’은 앞서 보았듯이 어떤 행위가 존재함을 함축하나 문제의 행동과 관련된 것 이외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기 거절하다’는 어떤 행위가 제안됨을 전제하나 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더 이상’이 ‘-기 거절하다’와 같이 쓰이면 ‘더 이상’이 요구하는 부정적인 문맥이 충족되며 이 구문이 적격하게 될 수 있다.³¹⁾

3.7. 성분 부정어

성분 부정은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문장을 구성하는 한 단어나 특정 요소에만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하는 경우이다. 부정극어가 문 부정에서 허가되므로 성분 부정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못한다.³²⁾ 따라서 이들은 극어를 허가하지 못하나 몇몇 성분 부정어는 부정을 나타낸다.

(33) 가. 이 일은 내일 아침까지 다 하는 것은 도무지/도저히/절대/절대로/결코/결단코/ 불가능하다.

나. ^(?)그는 미자에 대해 당최/도무지/전혀/도통 그녀에 대해 도무지 무관심하다.

된다고 할 수 있다.

31) ‘거절하다’는 내재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받아들이지 않다’(수용하지 않다)라는 ‘부정 함축을 나타내어 함축된 부정문의 반진언성에 의해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할 수 있다.

32) 부정극어가 전체 문장의 부정성에 의해서 허가되므로 부정문의 검증 방법으로 부정극어가 이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불가능하다', '무관심하다'는 성분부정인데 부정극어를 허가한다.³³⁾ 그러나 '불행하다', '불평하다', '불성실하다', '비인간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몰염치하다', '불행하다', '불이행하다' 등 다른 많은 성분 부정어는 부정극어를 허가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의 함수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34) 가. 주희가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 타기가 불가능하다.
 나. 주희가 자전거 타기가 불가능하고 주희가 오토바이 타기가 불가능하다.
- (35) 가. 주희가 자전거 타기와 오토바이 타기가 불가능하다.
 나. 주희가 자전거 타기가 불가능하거나 주희가 오토바이 타기가 불가능하다.

(34가)와 (34나)는 상호함의한다. 그러나 (35가)와 (35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반부가 함수이며 단조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또한 '무관심하다'도 단조감소 함수이다.

- (36) 가. 그는 반지나 목걸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나. 그는 반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는 목걸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 (37) 가. 그는 반지와 목걸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나. 그는 반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는 목걸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역시 (36가)와 (36나)는 상호함의하지만 (37가)와 (37나)는 상호함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 또한 반부가 함수이다. '불가능하다', '무관심하다'와 같은 성분부정어도 반부가 함수가 된다. 그러나 부정극어를 허가하

33) 영어에서도 부정접두사를 가진 unable, unconceivable, dislike 등은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는 성분부정어는 '불가능하다', '무관심하다', 정도에 국한되며 이에 의해 허가되는 부정극어는 '당최', '도무지', '절대', '절대로', '결코', '결단코' 등이다.

3.8. 비교의 '-느니'와 '-기보다'

비교 구문에서도 허가되는 부정극어가 있다.

- (38) 가. 철수가 손 하나*(도) 까닥하느니/기보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다.³⁴⁾
 나. 더 이상 확대하느니/확대하기보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다. 미자가 그런 일에 눈 하나*(도) 깜짝하느니/기보다 여름에 눈이 오겠다.

위에서 보듯이 '손 하나 까딱하다', '더 이상', '눈 하나 깜짝하다' 등이 비교문에서 허가된다. 다음에서 확인되듯이 '-느니'와 '-기보다'는 반형태 함수다.

- (39) 가. 나는 반지나 목걸이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겠다.
 나. 나는 반지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겠고 나는 목걸이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겠다.
 (40) 가. 나는 반지와 목걸이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겠다.
 나. 나는 반지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거나 나는 목걸이를 사느니/사기보다 쌀을 사겠다.

위에서 (39가)와 (39나)는 상호함의를 하고 (40가)와 (40나)도 상호함의를 한다. 따라서 '-느니'와 '-기보다'는 모두 반형태 함수이므로 '-느니',

34) '*(-도)'는 '도'가 결합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보다’에 의한 부정극어 허가는 모두 부정성이 강한 반형태 함수에 의한 허가라고 할 수 있다.³⁵⁾

‘-느니’ 구문은 비교 구문으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비교된다. 위에서 보듯이 화용론적 부정극어는 ‘-도’가 결합되면 비교문에서 쓰이지 못하지만 ‘-도’를 갖지 않은 형태는 자연스럽게 쓰인다. ‘-느니/-기보다’가 명시적인 부정극어와 같은 반형태함수이지만 ‘-도’가 결합된 극단 가정의 화용론적 부정극어는 허가하지 못한다.³⁶⁾

3.9.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은 표면상 의미와 전달되는 의미가 반대인 것으로 다수의 부정극어들이 수사의문문에서 허가된다.³⁷⁾

- (41) 가. 주희가 차마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그 애가 당최/²도무지/²통 제 말을 들어야지요.
 다. 제가 별로 아는 게 있습니까?
 라. 아이들이 좀처럼/좀체로/좀체 제 말을 들습니까?
 마. 미자가 여간 바빠니까?
 바. 진호가 여간내기입니까?
 사. 주희가 더 이상 그 일을 하겠어요?
 아. 철수가 그다지 똥똥하니?
 자. 철수가 이다지 좋아할 수가 있을까?
 차. 미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합니까?

35) ‘-느니/-기보다’가 반형태함수로서 부정성이 최강이지만 최저점 가정의 화용론적 부정극어 ‘동전 한 푼도’처럼 ‘-도’가 결합되면 이를 허가하지 못하는 점이 특이하다.

36) ‘-느니/-기보다’는 반진정적 운용소라고 할 수 있다.

37) 부정극어가 반드시 수사의문문에서가 아니라 의문문이 아닌 수사표현에서도 허가되거나 편의상 수사의문문이라 칭하기로 한다.

수사의문문은 단조감소 함수도 아니고 반부가함수나 반형태함수도 아니다. 따라서 단조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진정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의문문은 의문 연산자가 명제 내용 p 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명제 내용 p 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어 비진정적이다. 따라서 비진언적 맥락이 부정극어를 허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사의문문은 표면상 의미와 전달되는 의미가 반대이므로 위의 긍정 수사의문이 모두 부정문으로 해석되므로 이런 부정 함축에 의해 부정극어가 허가된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Linebarger 1987).³⁸⁾ 수사의문문은 '아무도', '전혀', '도저히', '미처', '차마', '채', '별로', '별반', '별달리', '-도'를 포함함 최저점(endpoint) 가정의 화용론적 부정극어는 허가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만이 수사의문문이 될 수 있는바, 부정극어는 주관적인 의미를 포함한 것이 많고 부정극어의 의미와 관련 수사의문문과 상호 배타적인 요소가 많아 상당수 부정극어가 수사의문문에서 배제된다.³⁹⁾

38) 수사의문문의 부정 함축을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라는 점에서 외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의 부정극어 허가를 외축으로 설명할 있을 것이다.

39) 남승호(1998)에서 '-아도(반부가)', '-는데도'(반형태) '모두'(반부가), '포기하다'(반부가) 등이 부정극어 허가자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정극어 허가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1) 가. ^{?”}더 이상 비가 와도 경기는 계속될 것이다.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죽이겠다고 했다.

우선 (1가)는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문장은 아마 '더 비가 와도 경기는 계속될 것이다.'에 이끌리어 나타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1나)의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일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를 갖는 부정극어이다. 그런데 위 예문들은 (1나)의 성립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나)는 전달되는 의미가 일과 연관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 동작과 관련하여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가락도 까딱하다'는 얼마든지 긍정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도'가 결합되면 비문이

4. 결론

본고에서는 부정극어 허가자의 특징과 이들의 부정극어 허가 양상을 살펴보았다. 부정극어는 부정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다. 본고에서는 명시적인 부정문 외에 비명시적인 부정 문맥에서 부정극어가 어떤 원리로 허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정극어 허가 원리에 대한 기왕의 업적을 살펴보았다. Klima(1964)의 부정사-통합 이론, Ladsaw(1979)의 하향함의이론, Zwarts(1993)의 단조성 이론, Zwarts(1995), Giannakidou(1977, 1998, 1999, 2000)의 (비)진정성 이론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비명시적 부정극어 허가자들이 어떤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위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2) 가. 손가락을 하나만 까딱해도 죽이겠다.

나. 손가락만 하나 까딱해도 죽이겠다.

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죽이겠다.

전형적인 명시적 부정문에서 이들은 쓰이지 못한다. 따라서 ‘-아도’가 부정극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다’를 허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부정극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아도’는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할 수 없다.

남승호(1998)에서는 ‘-는데도’가 부정극어 ‘그렇게’를 허가하는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보고 있으나 ‘그렇게’는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 ‘난 어제 밤에 이가 그렇게 아파서 약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와 같이 긍정문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정극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는데도’ 자체가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남승호(1998)에서는 ‘모두’를 부정극어 ‘더 이상’을 허가하는 허가자라고 보고 있다.

(3) [?]더 이상 결성하는 학생은 모두/다 낙제할 것이다. (남승호 예문 (76))

그러나 이 예문은 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장은 ‘더 결성하는 학생은 모두/다 낙제할 것이다’에 이끄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두’를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보기 어렵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검토했다. 명백한 부정어를 가진 부정문 외에 ‘-기 싫(어)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기 전에’, ‘-기 거절하다’, ‘-면’, ‘-느니/보다’, 성분 부정, 수사의문문 등이 부정극어를 허가한다. 이 중 단조성을 논의할 수 없는 수사의문문을 제외하고 ‘-기 전에’, ‘-느니/기보다’는 반형태함수였으며 나머지는 반부가함수였다. 그리고 ‘-기 싫어하다’, ‘-기 거절하다’, ‘-기 전에’는 반진정적 운용소이고 ‘-기 어렵다’, ‘-느니/기보다’, ‘-면’, 수사의문문 ‘-기 힘들다’는 비진정적 운용소였다. 따라서 국어 부정극어는 반부가 함수, 비진정적 운용소 이상에서 허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부가 함수는 단조 감소 함수의 하위 집합에 속하고 반형태 함수는 반부가 함수의 부분 집합이다. 부정성의 강도가 반형태 함수가 제일 크고 단조 감소 함수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부정극어에서는 허가자의 부정 강도와 그것이 허용하는 부정 강도가 비례하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보여 주지 않는다. ‘아무도’의 부정 강도가 가장 강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남승호 1994), 물론 ‘아무도’는 반형태함수 ‘-기 전에’에서 허가되기도 하지만 반부가함수인 ‘-기 싫(어)다’에서도 허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손 하나도 까딱하다’, ‘동전 한 푼도’ 등 최저점 표현에 ‘-도’가 통합된 표현은 ‘-도’가 통합되지 않은 형식보다 부정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부가 함수인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에서 허가된다. 그러나 오히려 반형태함수인 ‘-느니/기보다’에서는 ‘-도’ 통합 화용론적 부정극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또한 ‘-기 전에’는 반형태함수이지만 ‘-밖에’는 허용하지 못 한다. 따라서 ‘-밖에’는 비명시적 부정 극어에서는 전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강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그것이 문법화 과정에서 어원적 의미(‘-이외에’)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사의문문은 단조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바, 진정성 이론으

로 설명이 되었다. 의문문은 의문 연산자가 명제 내용 p 를 함의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명제 p 의 참, 거짓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비진언적이다. 따라서 부정극어를 인가하는 적절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수사의문문은 한편으로 부정적인 함축(좁은 의미로 외축)을 가지므로 이 부정 문맥에 의해 허가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명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등도 모두 외축적인 의미로 부정극어를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부정극어는 허가자의 함수 의미나 (비)진정성 외에 허가자의 의미적인 속성과 부정극어의 의미 속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허가자에 의해 허가되는 극어가 제한적이다. 한편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기 거절하다’는 ‘싫(어하)다’, ‘어렵다’, ‘힘들다’, ‘거절하다’ 형으로는 허가되는 부정극어가 극히 제한되거나 부정극어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극어 허가자는 ‘-기’를 선행시킨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왕에 부정극어 허가자로 다루어진 바 있는 ‘-아도’, ‘-는데도’, ‘모두’, ‘포기하다’ 등은 기본적으로 그들 예문이 쓰인 문장의 적격성이 문제가 되므로 진정한 부정극어 허가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처리했다.

【참고문헌】

- 구종남(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5-26.
- 국지연(2005), 「부정 극성에 대한 인지화용론적 접근」, 『영어학』 5.3, 501-525.
- 권경원(2009), 「부정극어 Any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3.4, 1-25.
- 김미자(2002), 「비진언성 이론에 입각한 부정극어 연구」, 『영어학』 2.4, 한국영어학회, 495-518.
- 김미형(1994), 「『부정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 『한국학 논집』 2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37-253.
- 김승곤(1979), 「선택형 어미 ‘거나’와 ‘든지’의 화용론」, 『말』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9-28.
- 김영희(1998),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 240, 241 합병호.
- 김용범(2004), 「시간 지시에서 한정성과 특성성」,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33집, 33-49.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217-244.
- 박승운(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1.1, 57-70.
- 시정곤(1997c), 「‘밖에’의 통사론」, 『국어학』 30, 171-200.
- 윤영은(2000), 「‘아무’와 ‘ANY」, 『언어』 25.3, 한국언어학회, 455-476.
- 이동규(1907), 「‘아무+(N)(이)나’와 ‘N+든지’의 효과적인 제시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35, 이중언어학회, 227-249.
- 이영현(1983), 「양화사 아무의 의미분석」, 『언어』 8.1, 한국언어학회, 71-87.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397-424.
- 이현우(2004), 「영어와 한국어의 부정극어」, 경진문화사.
- 이환목(1977), 「국어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13.2, 115-137.
- 이환목(1982), 「국어 함수 표현에 관한 연구 - 아니, 또, 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재영·엄홍준(2004), 「부정극어와 부정어」, 『언어』 29.1, 107-120.
- 임성출(1998), 「English Negative Polarity Item ‘any’ and Korean Counterparts ‘amwuto’ and ‘amwuna」, 『언어과학연구』 15, 289-307.
- 임유중(2005), 「부정소 호응 부사에 의한 연어와 사전 기술」, 『한국언어문화』 27, 235-256.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호, 국어연구소, 72-99.

- 장향실(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아무+명사+-(이)나'와 '의문대명사+-(이)든'의 의미 연구』, 『우리어문연구』 31, 69-90
- 채상진(2003),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 최기용(1889),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8.2, 한국생성문법학회, 313-341.
- 홍사만(1983, 『국어 특수조사론』, 서울: 학문사.

- Bhat, D. N. S.(2004), *Pronouns*, Oxford University Press.
- Borkin, A.(1971). "Polarity Items in Questions", *CLS* 7. 53-62.
- Carlson, G.N.(1981), "Distribution of Free-choice Any", *CLS* 17, 8-23.
- Dayal, V.(1998), "Any as Inherently Modal",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 443-476.
- Giannakidou, A.(2001), "The Meaning of Free Chic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4, 659-735.
- Diessel, H.(1999), *Demonstratives: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auconnier, G.(1975). "Polarity and scale principle", In Papers from the Elev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188-199.
- Giannakidou, A.(1998), *Polarity Sensitivity as (Non)Verdical Dependency*, Amsterdam: John Benjamins.
- Giannakidou, A.(2001), "The Meaning of Free Choic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4, 659-735.
- Givon, Talmy(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ivon, Talmy(1984), *Syntax vol.1*,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Haspelmath (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Clarendon Press.
- Horn, Laurence R.(1978a), "Remarks on Neg-Raising", *Syntax and Semantics* 19, ed. Peter Col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Horn, Laurence R.(1978b). "Some Aspects of Negation", I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Ioup, G.(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233-245.

- Krifka, M.(199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olarity items", *Linguistic Analysis* 25. 209-257.
- Ladshaw, W.(1996). "Negation and Polarity items", In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ed. Shalom Lappin. 321-341.
- Linebarger, M. C.(1980). *The Grammar of Negative Polarity*. Ph 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Linebarger, M. C.(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3. 325-387.
- Montague, Richard(1969), *On the nature of Certain Philosophical Entities the Monist* 53, 159-194
- Progovac, L.(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49-180.
- Progovac, L.(1994). *Negative and Positive Pol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erling, S.(1971). "A Note on Negative Polarity", *Papers in Linguistics* 4. 200-206.
- Wouden, Ton van der(1997), *Negative Context: Collocation, Polarity and Multiple Negation*, London, Loutledge.
- Zwarts. F. (1998), "Three types of Polarity". In F. Hamm and E. Hinrichs ed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Kluwer, Dordrecht.

Abstract

On the Licensors and Licensing of NPIs in Korean

Koo, Jong-nam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censors of negative polarity items based on monotonicity theory and nonveridicality theory. For this purpose I studied these theories firstly, and examined the NPIs in Korean by these theories. In addition to negative sentences which are made by explicit negatives 'ahn', 'mos', 'malda', '-ji anhta', '-ji mothada', 'eopsda', 'moreuda', there are several unexplicit NPI licensors like '-gi silheohada', '-gi eoryupda', '-gi jeone' '-myeon', '-gi geojeolhada', 'constituent negation, -neuni/giboda', rhetorical questions. The unexplicit NPI licensors all have anti-additivity and veridicality. Especially '-gi jeone' is anti-additive and antiveridical. So it licenses the strong NPI 'amwudo'. Almost all the NPIs are licensed by anti-additive function, but '- bakke' is permitted by anti-morphic function 'ahn', 'mos', '-ji anhta', '-ji mothada'.

Key-words : negative polarity items, monotonicity, anti-additive,
anti-morphic, veridicality, nonveridicality

구종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561-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화번호: 063-270-3171, 010-9603-3171

전자우편: jnkoo@chonbuk.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